❖ 미가 5 장,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남은 자들의 회복과 승리에 대한 예언'

❖ 들어가기

본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의 통치, 그리고 남은 자들의 회복과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되어 끌려가며 고통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멀지 않아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할 것이며, 더 나아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해 주심으로써 저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 메시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사역에 대한 예언 (1-5 절 A)

1) 우선 하나님은 1 절 말씀을 통해 장차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 1 절 주목!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①. 우선 '딸 군대여'='남유다', '그들이'='바벨론', '이스라엘 재판자'='시드기야 왕'을 가리킴!
  ②. 곧 1 절 말씀은 장차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포위할 것이며, '시드기야'의 뺨을 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모욕적인 날이 올 것을 미리 가르쳐주신 것!'
  ③.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은 실제로 B.C. 587 년 1 월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 년 반이나 에워싸고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과 귀족들을 다 죽이고, 그의 눈을 뽑아 바벨론으로 끌고 감으로써 완벽하게 성취되었음!!

2)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슬픔과 고통의 예언 중에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 올것이란 소망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2 절)

- 2 절 주목!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u>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u>."

  ①.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
  ②. '베들레헴'='떡집'이란 뜻이고, '에브라다'는 '열매가 풍성하다'란 뜻!
    - 그런데 이름의 뜻과는 달리 당시 이곳은 유다 내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음!
  ③.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메시야의 출생지로 택하시고, 그 이름 뜻 그대로 메시야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맺도록 역사하셨음!!

- 참고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새'의 막내 아들인 _____의 고향이기도 함!

=> 곧 하나님은 보잘 것 없고 미천한 '다윗'을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일찍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후손(예수 그리스도)이 다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메시야)가 되게 하시겠다고 미리 예언하신 것!!
⇨ 결국 이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확고한 믿음으로 메시야를 기다리게 됨!!

④.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특별히 나실 자는 '<u>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u>고 가르치셨음!!
- '근본은 상고에'의 히/원 '미케덤 미메 올람'은 '<u>모든 것보다 앞서', '태초 이전</u>'이란 뜻!
  ⇨ 곧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실 메시야(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
  ⇨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라고 선언함!! (요 1 장 14 절)

3)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그대로 두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 절)

- 3 절 주목!
  "<u>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u>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 참고로 3 절부터 선포된 말씀들은 지난 시간 생각했던 '예언의 2 중 성취'란 관점에서 접근!!

①. 예언의 1 차적 성취의 관점
-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진통을 다 겪은 후에야 아이를 낳듯이, 남은 자들이 자신의 죄(이스라엘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기 까지는 바벨론 70 년의 억압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나, 그 후에는 다시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신 것!

②. 예언의 2 차적 성취의 관점
-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할 것!
-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전까지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가지 고통과 환란을 당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구체적인 사역이 시작되면, 세상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적 평안을 얻는 은혜와 축복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
- <u>4-5 절 A 의 구절이 이와 같은 해석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줌!!</u>

- 4-5 절 A 주목!
  "<u>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u>,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u>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u> <u>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u>"

⇨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야의 통치와 사역을 미리 가르쳐주신 말씀!

①.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모든 사역을 행하실 것!!
-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이 이것을 증명!!

②. 그가 행하실 구체적인 사역 => **'목축하니'**
- 곧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양때를 안전하게 인도하며 먹이는 자상한 목자처럼,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먹이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
-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음!

③. 그의 통치와 사역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미칠 것'**
-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그의 통치와 사역은 한정적이었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의 통치가 다 한정적이고 제한적임!!
-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은혜의 통치는 모든 나라, 모든 국경을 뛰어 넘는 사역과 통치!!

④. 이와 같은 그의 통치와 사역의 결과 => **평강!!**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참 평강을 준 사람 또한 줄 사람이 없다!
  ⇨ 참 평강은 인간의 영적, 육적, 관계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충족시켜 주어야 함!
  ⇨ 참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 +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 용서와 화해가 필요!
-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2. 메시야(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들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예언 (5B-9 절)

1) 하나님은 아무리 북방 민족들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여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저들을 대적하며 승리케 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5 절 B-6 절)

▪ 5 절 B-6 절 주목!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①. 우선 '앗수르'와 '니므롯'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시대의 세상 나라, 세상 권력, 나아가 공중 권세잡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말로 해석!

②. 그런데 이러한 공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앗수르 땅과 니므롯(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
-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은 위기와 환난,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주의 일군들(어떤 학자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라 해석..,)을 가리킨 말!
- 또한 이때 숫자는 그만큼 충분한 믿음/지혜/능력을 소유한 일꾼들을 의미한 것!

③. 특히 앗수르(세상 나라, 권력, 사탄의 세력)의 공격이 강해도 **'그가 우리를 건져내실 것'!**

- 곧 세상과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공격한다 해도, 주님이 친히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건져내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

2)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야곱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7-9 절)

▪ 7 절 주목!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①.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
- 8 절에서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 곧 단순히 앗수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야곱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②. 그런데 저들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
- 이슬이나 단비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
- 이슬과 단비가 하늘로부터 내린 축복인것처럼, **저들은 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

③. 그런데 이들은 이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
- 곧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의 행운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산다는 것!!
-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과 삶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 8 절 주목!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①. 이 말씀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고난과 환란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용기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예언하신 것!

▪ 9 절 주목!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①.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깨닫게 됨!
-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돈과 지식, 지위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악한 사탄과 싸워 승리하길 바라심!!
- 이것은 지난 시간 살펴본 4 장 13 절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

- 미가 4 장 13 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u>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u>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뿔을 무쇠같게, 우리 굽을 놋 같게 하실 것을 믿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듯 우리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복음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자!

3.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 (10-15 절)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인간이) 의지하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0-11 절)

- 10-11 절 주목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①. 예언의 1 차적 성취의 관점에서 볼 때,
  => 당시 남유다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말과 병거와 성들이 다 멸절되고 무너질 것을 예언!
  => 참고로 당시 유다는 앗수르의 침략과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쌓은 견고한 성읍과, 애굽의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함!!

  ②. 예언의 2 차적 성취의 관점에서 볼 때,
  => '그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인간이 신뢰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을 가르치시며 예언하신 것!!
  => 시편 20 편 7 절의 다윗의 고백!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2)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인간이) 신뢰하며 따르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12-15 절)

- 12-15 절 주목
  "<u>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u>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u>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u>,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u>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u> 하셨느니라"

①. 예언의 1 차적 성취의 관점에서 볼 때,
=> 당시 이스라엘 사회 안에도 애굽과 앗수르, 바벨론 등지에서 유행하던 점술과 백성들을 미혹하던 마술들이 성행했고, 앗세라 목상과 같은 다양한 우상들이 숭배되고 있었음!
=>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것!! (레 20:27. 신 18:10, etc.)
=> 결국 이와 같은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

②. 예언의 2 차적 성취의 관점에서 볼 때,
=> 마법이나 점을 치는 행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여러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두는 하나님께서 교만과 함께 가장 싫어하시는 죄!
=>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

=> 다른 한 편으로는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저들의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사라지게 하실 것!!
=>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자!

❖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